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 services area
and the satisfaction with it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정 지 영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 Jea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 Jee Young Jeong

목 차

I. 서 론	IV. 결과의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 service area and the satisfaction with it, and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on them.

For these purposes, the data are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450 housewives living in Seoul. The data a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ile,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1.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 service area according to housewife's education and employment, family income, the type of housing, the number of household equipment, sex role attitude, attitude about household task, and task performance competency.

2. The factors showing significant relation to the satisfaction about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 service areas are found to be housewife's education and employment, family income, sex role attitude, and task performance competency.

3. In the result of the independent contribution of the factor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s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 service area and the next is sex role attitude.

4. Housewives are generally satisfied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 because of the overweight of household task and because they are unable to those household tasks. And on the other hand, they are generally dissatisfied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tasks because of economic weight, because they couldn't know the ability of service export before employing, and because the housework practiced by service expert is different from their expects.

I. 서 론

과거의 가정은 생산·문화·종교·교육·정치 등 인간생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점차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구성상의 변화와 경제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내의 생산적이며 가족적인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어,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소비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산업화로 인해 생산의 조직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상품의 가격이 낮아졌으며, 시장에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이 날로 다양화·대량화되어 편리식품, 기성복, 가정용 전기기구, 외식산업 등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가정에 개발되어 공급되어지고 있다(정연주, 1986:1). 따라서, 오늘날에는 종래의 가정내에서 행하여지던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산업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감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가사노동의 사회화', 혹은 '산업화'라고 칭하고 있다(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사회화에는 재화에 의한 대체와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있는데(이기영, 1981:220), 초기에는 가사노동 부담이 과중한 식생활영역과 사회화가 일찍부터 발달된 의생활영역에서 가공식품과 기성복 등 재화에 의한 대체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함께 가사노동 분야에 있어서의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의생활영역에서는 세탁이나 수선, 보관 등의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식생활영역에서는 가공식품의 부분적 활용에 그치던 수준에서 벗어나, 외식의 증가, 조리사·영양사의 고용증대와 주문배달 등 서비스에 의한 대

체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외에도, 주생활과 가족, 구매 및 관리 등의 영역에서는 각종 가사관련 기구의 사용뿐 아니라 가족의 간호와 교육·양육을 위한 병원·양로원·유치원의 이용 및 공동주택관리체계와 같은 공공서비스센터 이용의 증대 등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구조적, 기술경제적 변화와 함께 가정내적인 요구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생활을 간편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며,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지만 가정 고유의 기능을 이전시키는 것으로써, 가사노동의 경감이라는 장점외에 가정 고유의 기능을 상실·파괴하는 여러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정생활의 목표인 가족원 욕구충족의 극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적정수준을 모색하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방향 정립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과 그에 대한 주부들의 만족수준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심리학적 특성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가족구성원 공동의 욕구충족과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정관리의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가사노동 서비스의 개념

가사노동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노동력의 재생산과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사회적 힘의 원천으로,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김영란, 1987:9).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가사노동은 오늘날 자본주의적 생산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자본재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데(조윤경, 1988:7),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가사노동 중 관리적인 정신노동만이 가정에 남고 기타의 일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가정밖의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사회화의 일부분인 가사노동 서비스의 개념이나 범주를 명확하게 밝힌 연구는 아직 거의 없으며, 주로 가정생산이나 가사노동의 개념 정의 및 범주 문제와 관련지어 가사노동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개념을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가사노동 개념들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Reid(1934)는 가계생산이 시장에서 재화의 구입이나 소득, 시장조건, 개인성향과 같은 제반 사정에 의해 가족원외의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여,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무보수의 노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정밖의 산업노동에 의해 대체되어지는 가사노동 서비스는 가사노동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 Beutler와 Owen(1980)은 가사노동을 가정생산으로 보고, 대체 가능한 것과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체가 가능한 분야는 시장의 재화와 용역을 통해 가정내 활동의 대체영역을 개별적 용역 부분, 즉 가사노동 서비스 부분에 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계생산의 범주를 넓힌다고 하였다. Heinrich(1967)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원의 생활영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인 가사노동 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모든 재화를 최종적으로 향유하게끔 만드는 행위와 함께 가사노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이 가사노동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荒又重雄(1972:182)는 생활수단인 상품의 소비를 위해 필요한 노동인 소비노동 중, 가족원들을 위해 직접 수행되는 가사노동을 제외한 부분을 가사노동 서비스, 가정내 노동이라고 칭하고, 육아, 교육, 간호 등 가족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노동 즉, 순서비스 중에서 사회적 분업에 편입되지 않고, 가족원이 상호배려 하는 부분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廣田壽子(1971:26)는 가사노동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생활수단인 상품을 구입하는데 수반되는 노동, 구입한 상품을 가공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청소·세탁·간호 등과 같은 가족을 위한 서비스형을 취하는 노동, 육아에 수반되는 노동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때 서비스형을 취하는 노동을 협의의 의미에서의 가사노동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견해에서 伊藤秋子(1978)은 노동의 성격에 따라 가사노동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협의의 가사노동과 계획·기록과 관련된 가정관리 노동, 그리고 가정내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교육·간호 등의 서비스노동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大森和子(1981:220)는 가사노동의 대체를 재화에 의한 대체와 서비스에 의한 대체로 분류하고, 재화에 의한 대체는 반가공품, 가공품, 기성품 등의 사용에 의한 추가적 가공의 성격을 갖는 가사노동의 대체이며, 서비스에 의한 대체란 식당이나 세탁소, 양장점 등이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파출부를 포함한 가정부의 고용을 시장에서 구입되는 서비스노동으로써 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기영(1987)은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출부나 가정부가 수행하는 일의 범주가 전반적인 가사작업을 수행하고, 이들의 고용이 가사노동을 가정밖으로 이전시키거나 분해시키는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하였

지만, 그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가사노동 영역별로 전문화된 용역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청소부, 파출간호부, 베이비 시터 등과 같은 용역의 고용이 가사노동에 대한 분해효과를 갖게 되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 가사노동 사회화의 개념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조직하여 욕구충족을 위해 사용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인 가사노동은 가족원들이 원한다면 유급의 서비스로 대체되어 질 수 있다(Reid, 1934; Beutler와 Owen, 1980:——, 1981:7). 즉, 가정내에서 행하여 지던 가사노동 영역에 자본주의적 상품과 서비스가 침투되어 들어감으로써 가사노동이 이들 상품과 서비스에 의해 대체되어 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라고 부른다(이기영, 1987:23 재인용). 김혜경(1985:93)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생산방식이 사적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으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생산화'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Egner(1952)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가정내의 생산과정이 끊임없이 외적인 영역 즉, 영리적이고 공적인 부분으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가정내에서 가족에 의해 생산되고 처리되어 지던 생활 물자와 서비스 대신에 생활을 능률화하는 수단으로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정 외부의 산업기관이나 사회적 공업력, 혹은 공공기관의 이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Fischer(1972:이기영, 1981:209-210 재인용)도 가족원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시장을 통해 구입됨으로써 가사노동이 가정 외부의 영역으로 이양되는 현상으로 '가사노동의 산업화'라고 하였으며, 가사노동의 산업화를 국민경제로의 편입과정의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문숙재·채옥희(1986:11)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정내에서 수행하였던 가사노동을 가정밖의 여러가지 서비스로 대체하여 시간, 또는 노력의 경감을 도

모하는 방법이므로 '가사노동의 외부화', 또는 '산업화'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C.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1.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 주부의 연령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는 식생활 영역에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외식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강정욱, 1983; 정연주, 1986; 이기영, 1987; 이기춘 외, 1989) 연령에 의해 부적의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이기영(1987:1561과 이기춘 외(1989:125)의 연구에서도 의생활 관련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주부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교육수준은 주부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조윤경, 1988) Bellante와 Foster(1984)는 서비스와 지출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식생활 영역의 외식과 주문음식 이용실태 및 의생활과 주생활 영역에서의 서비스에 의한 가사노동 사회화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전문가에게 대체시키는 영향이 높다.(이기춘 외, 1989: 126-129; 이재희, 1989:413)

다. 주부의 취업여부

Bellante와 Foster(1984)는 취업주부의 경우에 시장 용역의 이용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주부의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윤경(198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일 경우 가정내외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여야 하는 이중부담으로 인해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어 가사노동 사회화에 긍정적 태도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희(1989:41)의 연구에서도 식생활영역의 서비스 구매 실태에 주부의 취업여부가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였다.

라. 가족수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있어서 가족수가 적을수록 외식의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가족수에 따른 가사보조자 고용정도에 있어서는 가족수가 3-4명일 때는 가사보조자 고용정도가 높고, 5-6명일 때는 낮아졌다가, 7명이상일 때는 다시 높아짐으로써 가족수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정연주, 1986:59). 따라서, 가족수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일관성 있는 결과가 부족하다.

마. 자녀수

이기영(1987:128)의 연구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 상품대체수준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수의 증가는 가사노동량의 증가와 함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 오므로(Walker & Wood, 1976; Gronau, 1977, 이정수, 1985), 주부들은 이러한 가사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녀양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분하기 위하여 가사용 내구재나 시장대체품을 구입하거나(이기영, 1987: 63) 가사보조자와 기타 서비스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 가족형태

가족형태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는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사보조자 고용에 있어서는 핵가족일 경우에는 시간제 파출부를 이용하지만 확대가족일 경우에는 전일제 가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가 높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이기영, 1987) 그러나, 외식의 이용에 있어서는 핵가족일 경우에 서비스의 사회화가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정연주, 1986).

사. 가정소득

가정소득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영향력은 단지 식생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Bellante와 Foster(1984)의 5개 서비스와 지출비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서

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정연주(1986)의 연구에서도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외식과 배달 서비스의 이용, 가사보조자 고용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의 사회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 주거형태

주거형태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는 배달서비스 이용도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식산업과 가공식품 등을 대량판매하는 슈퍼체인이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주위에 밀집되어 있고, 주문음식을 배달해 주는 외식집이 많아 배달서비스 이용이 편리한 시장조건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정연주, 1986:83) 그리고, 이외에도 가사노동서비스 사회화에 따른 주거형태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는 의생활과 주생활 영역 전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이기춘 외, 1989: 123, 127)

자. 내구재 소유수준

Fischer(1975)의 가사노동의 기계화의 효과를 통하여 볼 때 가정에서 대부분 주부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의식주생활은 그 노동의 과중함이 가사기구에 의해 대체되어짐으로써 가사조력자의 고용에 의한 서비스의 사회화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하여, 가사노동관련 내구재의 소유수준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사회심리적 변수

가. 성역할태도

이분화된 성역할태도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사노동을 가정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도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지연시키며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이기영(1987), Reid(1934), Gilman(1966), Hartmann(1974:63) 등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가족원들에 의해 가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적 생활이 유지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 가능성이 제한되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주부의 성역할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주부들이 특정 가사작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가사노동 수행의 빈도와 표준이 높고 수행 시간이 길어지는데(이기영, 1987), 이러한 사실은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가 가사노동 수행양식을 규정하는 요인이며, 동시에 가사노동 사회화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가치있는 노동으로 인식할 경우, 이러한 양식은 가사노동의 수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데(조윤경, 1988:29), 가족수가 많을 때에는 늘어나는 가사노동 시간과 가사노동량의 감소를 위해 유급의 가사보조자를 통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Hall & Schroeder, 1970).

다. 가사노동 수행능력

가사노동 수행능력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를 보면, 이기영(1987:87)은 가사노동 기술이 인적 자원의 한 형태로서, 가사노동 수행의 투입 요소로 작용하여 가사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olmstrom(1972)은 이러한 기술은 가사노동 전반에 관련되기 보다는 특정 가사작업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인지되는데, 특히 식사준비, 옷 만들기과 같은 가사작업에 대해 수행자 스스로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잘할 수 있는 가사작업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이기영, 1987 재인용).

3.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가사노동 서비스의 각 영역별 사회화수준을 살펴보면, 식생활영역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가사보조자에 의해 가사노동별 서비스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정도를 파악하기 보다는 외식 이용에 의한 서비스의 사회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이재희, 1989:414; 이기춘 외, 1989:122). 외식을 하는 이유는 가족간의 단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아(이기춘, 1989:122) 외식이 단지 식사로서의 의미보다는 가족 단위활동의 일환으로 사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서비스 사회화수준은 일반

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재희(1989:413), 이기춘 외(1989:125)의 연구에서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라 사회화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부들은 의생활영역의 사회화에 있어서 화폐소비의 절약보다는 솜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서비스 전문가의 기술 및 전문성을 신뢰하므로 사회화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생활영역에 있어서의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나 이재희(1987:413-414), 이기춘 외(1989:127)의 연구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주생활영역에 있어서의 서비스 사회화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보다 많은 사회화가 진전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돌보기영역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은 이재희(1989:414)의 연구에서 개인지도 및 병원 이용 등의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매 및 관리영역에 있어서의 서비스 사회화수준은 60%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내어 사회화가 진전되기 시작하였고, 주문음식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는 90% 이상의 이용율을 나타내어 재료배달서비스의 이용보다는 사회화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에서는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가 정착되어 소득이 높고 시간압박을 받는 취업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반면, 주생활이나 가족돌보기 영역에 서비스의 사회화가 낮은 이유는 전문적 기술에 의해 상품의 개별성이 높기 때문에 대중화가 어렵고 법적 규제에 의해 이용율이 낮기 때문이다(이재희, 1989:414).

그러나, 가사노동 전영역에서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를 수행하는 가사보조자의 이용은 산업화에 따른 가사보조자의 임금상승과 가사노동 기계화와 관련되는데, 강진주·서병숙·최보가(1968)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1%정도가 가정부를 고용하였으나, 이효재 이동원(1974)의 취업주부 대상의 연구에서는 41.6%가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기영(1987)의 연구에서도 5.1%가 가정부를, 17.6%가 파출부를 고용함으로써 산업의 발달과 함께 가사보조자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수준은 가사노동 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 역시, 가사노동 종류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식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외식 이용이 만족하는 편(52.8%)으로 나타났고(이재희, 1989:418), 학력과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이 낮은 주부와 취업주부의 경우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생활영역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고(이재희, 1989:418;이기춘 회, 1988:125), 불만족 이유에 따라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식생활과 의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대체로 높은 반면, 주생활영역에서는 주택 및 가구수리가 불만족 27.1%, 보통 43.8%, 만족 29.1%로 나타나 식생활과 의생활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기춘 외(1989:128)의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리를 전문서비스업자에게 맡겼을 경우, 수리과정에서 많은 소비자(81.6%)가 문제들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택수리의 시장대체에 관련된 소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가족돌보기영역의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개인지도 및 병원 이용의 경우, 만족도가 서비스 이용 5개 영역중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이재희, 1989:418), 이러한 이유는 이들 서비스의 표준화가 어렵고 이용 후의 결과를 즉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사노동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보조자 이용에 대한 만족수준은 주택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가사노동 수행상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구매에 대해 보다 많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이재희, 1989:418).

D. 연구 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따라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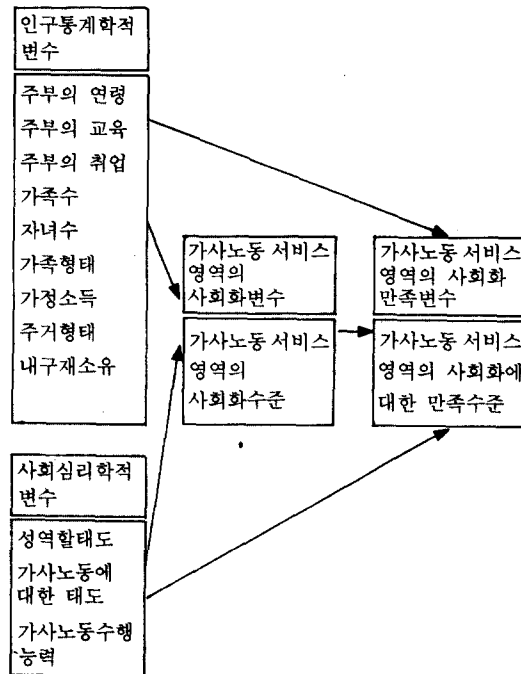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따라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해 만족, 혹은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 용어의 정리

1. 가사노동: 노동의 한 형태로서, 가족 공동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가족 생활은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가족원과 친척, 기타 고용인에 의해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말하며, 무보수의 노동과 유급의 지불노동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2. 가사노동 서비스: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내에서 수행되어지는 가사노동 중, 무형의 서비스 활동으로서, 가사보조자나 서비스 전문가에서 위탁되어 수행되어지는 유급의 지불노동과 가족들에 의해 행해지는 무보수의 노동 모두를 포함한다.

3.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정내의 생산과정이 가정 밖의 영역인 사회로 이전되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재화나 용역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공동으로 처리, 혹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는 형태에 따라 유형의 재화에 의한 사회화와 무형의 서비스에 의한 사회화가 있다.

4.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가사노동 중에서 가사노동 서비스들이 가사보조자나 서비스 전문가에 의해 유급의 지불 노동으로 대행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5.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 수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들을 사회화한 후, 이에 대하여 주부들이 만족, 혹은 불만족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III. 연구방법

A.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 수행능력 등을 포함하는 사회심리적 변수들에 관한 문항,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및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용후의 만족수준과 만족 불만족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를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과 문항작성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가족수, 자녀수, 가족형태, 가정소득, 주거형태 및 내구재소유수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교육수준은 김영모(1980)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족형태와 주부의 직업은 취업여부에 따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사회심리적 변수들 중에서, 성역할태도 척도는 Osmond와 Martin(1975)의 성역할 태도 척도와 박태은(1983), 정승혜(1987), 정연주(1986), 조윤경(1988), 이기영(1987) 등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12문항으로 재작성하였고,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척도는 가사노동 선호도(6개 문항)와 가사노동 가치인식(5개 문항), 가사노동 시간(4개 문항)에 대한 태도 등의 하위영역 문항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Maloch(1963), Steidl(1975), 서창원(1984), 박애란(1987), 이기영(1987), 조윤경(1988)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15개의 문항으로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 수행능력 척도는 세분화된 가사노동 영역별 과제에 대한 수행 기술의 수준을 주부 자신이 평가한 결과로 Walker와 Wood(1976), 김외숙(1981) 이기영(1981)의 20개 문항과 정영금(1989)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가사노동 분류 항목들을 참조하여 총 19개의 가사노동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사회심리적인 변수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들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역할 태도 .85,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83, 가사노동 수행능력 .76이었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척도는 세분화된 5개 가사노동 하위영역별 과제에 대하여 주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파출부나 서비스전문가에 의해 가사노동이 대체되어지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Walker와 Wood(1976), 김외숙(1981), 정연주(1986), 이기영(1987), 이기춘 외(1989), 이재희(1989), 정영금(1989) 등의 연구를 토대로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8개 문항을 가사노동영역별로 살펴보면, 식

생활영역 5개 문항, 의생활영역 7개 문항, 주생활영역 8개 문항, 가족돌보기영역 6개 문항, 구매 및 관리영역이 2개 문항이었고, 이들 문항들에 대해 주부가 직접, 서비스 전문가나 파출부에 의해 가끔, 자주, 매우 자주 등 대체되어지는 정도에 따라 4개 부분으로 가사노동 서비스가 사회화되어지는 수준을 분류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0이었고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식생활 .76, 의생활 .74, 주생활 .81, 가족돌보기 .72, 구매 및 관리 .75였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의 측정변수는 5개 가사노동 영역별로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를 사회화한 후에 만족하는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5개 가사노동 하위영역별로 사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총 17개의 서비스를, 강정옥(1983), 정연주(1986), 이기영(1987), 소연경(1988), 이기춘(1989), 이재희(1989), 정영금(1989)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1이었다.

그리고,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이유에 관한 문항들은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영역들을 사회화 시킨 후에 이에 대하여 만족, 혹은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가사노동 서비스의 각 영역별로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를 보기에서 고르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만족 불만족 이유들의 보기는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예비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문항을 직접 기재한 것들 중 만족의 이유 6개, 불만족의 이유 9개를 본조사에서 선정하였다.

B.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25세 이상의 기혼여성으로 제한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가정이나 1인 가정은 제외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자료의 미비한 점을 일부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는 198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병행하여 응답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배부된 450부의 설문지 중 423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부실기재된 설

문지를 제외한 410부의 설문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분석방법으로는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등과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시 주부의 교육수준은 수학년수로 환산하여 적용시키고, 가정소득은 문항 응답 범주의 중앙값으로 전환시켜 적용하였다. 그러나, 주부의 취업은 가변수처리를 하였다.

C.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사회심리적 변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부들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부들의 성역할태도 점수는 최저점 13점에서 최고점 57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측정치의 평균이 33.52점으로 중감점수인 26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성역할태도는 중간 집단에 속하지만 약간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점수는 최저 28점에서 최고 75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측정치의 평균이 50.11로 중간점수인 45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약간 긍정적인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 수행능력 점수는 최저 29점에서 최고 81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측정치의 평균이 51.60으로 중간점수인 57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주부들의 가사노동 수행능력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은 최저점 34점부터 최고점 95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측정치의 평균이(60.60) 중간점수인 70점보다 훨씬 낮아,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이 비교적 낮고, 서비스 전문가에게 '가끔' 사회화시키는 정도에 머무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10

변 수	집 단	백분율(%)	빈도(명)
주부의 연령	20, 30대	28.5	117
	40대	30.0	123
	50대	24.9	102
	60대	16.6	68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1.0	45
	고졸-전문대졸	45.8	188
	대졸이상	43.2	177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	25.1	103
	비취업	74.9	307
가족수	2명	5.4	22
	3명	8.5	35
	4명	38.5	158
	5명	26.6	109
	6명이상	21.0	86
자녀수	없음	6.1	25
	1명	10.2	42
	2명	45.6	187
	3명	28.1	115
	4명	10.0	41
가족형태	핵가족	78.8	323
	확대가족	21.2	87
가정소득	40만원미만	9.0	37
	40-99만원	26.8	110
	100-149만원	25.9	106
	150-199만원	20.2	83
	200만원	18.1	74
주거형태	아 파 트	53.2	218
	단독주택	35.4	145
	연립주택 및 기타	11.4	47
내구재소유	10개이하	10.2	42
	11,12개	21.0	86
	13,14개	28.8	118
	15,16개	33.2	136
	17,18개	06.8	28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수준을 각 영역별로 살펴 보면, 식생활영역은 평균이 7.78로 중간점수(10점)보다 낮아 사회화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가족돌보기

영역에서도 평균점수(10.96)가 중간점수(16)보다 낮아 사회화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즉, 식생활 영역과 가족돌보기영역에서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 수준은 '가끔' 사회화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자

녀·노인·환자 돌보기와 같은 비신체적인 가족돌보기영역에서 서비스의 사회화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생활영역과 구매 및 관리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각각 15.71과 4.03으로서 중간점수(14와 4)를 약간 상회하여 가사노동 서비스를 '자주' 사회화 시키는 정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주생활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22.18로 중간점수(16점)보다 상당히 높아,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자주' 사회화시키는 정도를 넘어 '매우 자주' 사회화시키는 경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 수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최저점 29점에서부터 최고 95점까지 이르고, 측정치의 평균(45.59)이 중간점수(42점)보다 약간 높아,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영역별 가사노동 서비스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4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가 모두 '만족'하는 수준을 넘고 있어(식생활영역 2.51, 의생활영역 2.60, 주생활영역 2.65, 가족돌보기영역 2.74, 구매 및 관리영역 2.68),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의 전 영역에서 사회화에 만족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만족 수준이 높은 영역은 가족돌보기영역이었다. 특히, 가족돌보기영역 중에서도 신체적 가족돌보기영역, 즉 미장원·이발소 서비스와 목욕탕·사우나 서비스등의 항목에서 만족수준이 높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일찍부터 사회화된 부분이므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족원들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시정되어 있고,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 가족원들이 적합한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V. 결과의 해석

1.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라 가사노동 서비스영역의 사회화 수준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은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주부의 교육 및 취업여부, 가정소득, 주거형태, 내구재 소유수준 등과 사회심리학적 변수인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 수행능력 등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P < .001$)를 나타내었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Scheffe's Test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집단과 고졸 전문대졸이하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교육수준이 중간인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은, 두 집단간에 뚜렷한 점수 차이를 나타냈으며, 취업주부 집단이 비취업주부 집단보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가정소득은 가정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집단 1)과 중간 집단(집단 2, 3)간에는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에 뚜렷한 증가 없었지만 소득이 중간이상일 때에는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에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및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내구재 소유수준에 있어서는 내구재 소유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수준도 증가하지만, 일정수준(15, 16개)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인다. 즉, Scheffe's Test 결과, 가사노동관련 내구재의 소유수준이 극히 낮은 집단(10개이하)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

(N=410)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F 값	Scheffe's Test
주부의 연령	20, 30대	117	60.15	1.98	A
	40대	123	60.50		A
	50대	102	62.73		A
	60대	68	58.35		A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5	54.98	*** 11.09	A
	고졸 전문대졸	188	59.41		A
	대졸이상	177	63.29		B
주부의 취업	취업	103	65.52	*** 25.20	A
	비취업	307	58.94		B
가족수	2명	22	60.27	0.04	A
	3명	35	60.23		A
	4명	158	60.65		A
	5명	109	60.52		A
	6명이상	86	60.91		A
	자녀수	없음	25		60.84
1명	42	61.67	A		
2명	189	60.48	A		
3명	115	60.77	A		
4명이상	41	59.39	A		
가족형태	핵가족	323	60.28	1.08	A
	확대가족	87	61.79		A
가정소득	49만원이하	37	53.76	*** 48.74	A
	50-99만원	110	54.11		B
	100-149만원	106	58.83		C
	150-199만원	83	63.51		D
	200만원이상	74	72.93		E
주거형태	아파트	218	62.37	*** 8.32	A
	단독주택	145	59.74		A
	연립주택기타	47	55.02		B
내구재 소유수준	10개이하	42	53.86	*** 5.66	A
	11, 12개	86	59.28		B
	13, 14개	118	60.56		B
	15, 16개	136	63.06		B
	17, 18개	28	62.96		B
성역할 태도	보수적태도	168	52.88	*** 144.58	A
	중간적태도	167	62.38		B
	진보적태도	75	73.92		C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부정적태도	15	80.67	*** 86.44	A
	중간적태도	255	63.72		B
	긍정적태도	140	52.76		C
가사노동 수행능력	높은 집단	116	52.28	*** 55.05	A
	중간 집단	280	63.46		B
	낮은 집단	14	72.21		C

* P<.05, ** P<.01, *** P<.001

과 높은 집단(13개이상) 사이의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에 뚜렷한 점수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에서는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이 덜 진보적인 집단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이 긍정적인 집단보다, 그리고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이 높았다. 또한 Scheffe's Test결과, 위의 사회심리적 변수들 모두는 각 하위집단 간에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사회심리적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주부의 교육수준($P<.05$), 취업여부($P<.01$), 가정소득과 사회심리적 변수인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가사노동 수행능력($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3 참조>

주부의 교육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나는데, Scheffe's Test 결과에서도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의 집단과 대학졸업이상의 집단간에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주부 집단이 비취업주부 집단보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고, Scheffe's Test 결과에서도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그리고, 가정소득은 가정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고, Scheffe's Test 결과, 가정소득이 낮은 집단 1, 집단 2와 가정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5간에 뚜렷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심리적인 변수들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이 보수적인 집단보다 높았고,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으며, Scheffe's Test 결과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 수행능력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고,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았다.

3.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력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변수들이 주부의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고,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구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성역할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소득,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 수행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성역할태도($\beta=.37$)가 진보적일수록, 가정소득이 높을수록($\beta=.32$),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beta=-.23$),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beta=.21$)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의 총 분산을 설명해 주는 정도는 71.6%였다.

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

제 변수들이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들과 사회심리학적 변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종속변수로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사회심리학적 변수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 (N=410)

변 수	집 단	빈도	평균	F 값	Scheffe's Test
주부의 연령	20, 30대	98	45.35	0.27	A
	40대	106	45.84		A
	50대	86	55.61		A
	60대	60	45.27		A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0	44.28	* 4.53	A
	고졸 전문대졸	157	45.09		AB
	대졸이상	153	46.35		B
주부의 취업	취업	94	46.89	** 10.92	A
	비취업	256	45.05		B
가족수	2명	16	45.29	0.56	A
	3명	29	44.62		A
	4명	138	45.42		A
	5명	93	46.01		A
	6명이상	74	45.64		A
	자녀수	없음	18		45.50
1명	35	44.91	A		
2명	167	45.57	A		
3명	98	45.76	A		
4명이상	32	45.50	A		
가족형태	핵가족	75	45.99	0.84	A
	확대가족	275	45.43		A
가정소득	49만원이하	33	44.55	*** 6.81	A
	50-99만원	86	43.94		A
	100-149만원	87	45.57		AB
	150-199만원	73	45.84		AB
	200만원이상	71	47.61		B
주거형태	아파트	126	45.65	*** 2.55	A
	단독주택	187	45.80		A
	연립주택기타	37	43.92		A
내구재 소유수준	10개이하	37	44.24	1.38	A
	11, 12개	75	45.01		A
	13, 14개	92	45.90		A
	15, 16개	119	46.01		A
	17, 18개	27	45.56		A
성역할 태도	보수적태도	140	43.44	*** 42.82	A
	중간적태도	140	45.92		B
	진보적태도	70	49.06		C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부정적태도	14	51.14	*** 31.78	A
	중간적태도	222	46.37		B
	긍정적태도	114	43.25		C
가사노동 수행능력	높은 집단	94	43.66	*** 14.75	A
	중간 집단	242	46.06		B
	낮은 집단	14	49.36		C

* P<.05, ** P<.01, *** P<.001

〈표 4〉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B	Beta (β)
주부의 연령	- 0.029	- 0.029
주부의 교육수준	0.013	0.003
주부의 취업여부	0.433	0.016
가족수	- 1.059	- 0.115
자녀수	0.739	0.064
가족형태	1.845	0.064
가정소득	0.050	0.315 ***
주거형태	- 0.183	- 0.010
내구재소유수준	0.097	0.019
성역할태도	0.478	0.370 ***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 0.333	- 0.228 ***
가사노동 수행능력	0.282	0.205 ***
Constant		40.869
R2		0.716
F-Value		86.776 ***

* P < .05, ** P < .01, *** P < .001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고, 연구의 기초가 되는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같이 주부의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수는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이고, 그 외에는 성역할태도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주부의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수준($\beta=.38$)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졌으며($r=.55$), 이는 주부의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가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용요인임을 나타내 준다. 즉,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가 낮은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데 보다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해 주부들이 “비교적 만족”하고 서비스의 사회화를 많이 시키는 주부들이 서비스 영

역의 사회화에 대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가사노동 서비스영역에서의 사회화가 더욱 발전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전문가들은 주부들과 그 가정의 고유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방향에서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주부들이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사용 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자격증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부들은 자신의 시간과 능력, 가정 소득 등과 가족원의 의견 및 가정 제반여건에 적합한 수준에서 가정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사노동 서비스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역할태도($\beta=.21$)로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주부일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해 전통적인 주부들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가정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여 가사

〈표 5〉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

독립변수	종속변수	
	B	Beta (β)
주부의 연령	- 0.149	- 0.008
주부의 교육수준	- 0.307	- 0.015
주부의 취업여부	- 0.268	- 0.012
가족수	0.010	0.001
자녀수	0.601	0.058
가족형태	0.303	0.099
가정소득	- 1.625	- 0.048
주거형태	- 1.046	- 0.003
내구재소유수준	0.059	0.069
성역할태도	3.027	0.207 ***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 1.138	- 0.091
가사노동 수행능력	1.643	0.358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수준	4.187	0.378 ***
Constant		31.625
R2		0.345
F-Value		13.614 ***

* P < .05, ** P < .01, *** P < .001

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만족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두 변수들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의 총 분산을 35% 설명해 주고 있다.

4.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이유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와 불만족하는 이유를 가사노동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7, 8〉과 같다. 식생활 영역의 서비스 사회화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는 집에서 하면 일이 많아져 귀찮기 때문이 (35.4%)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솜씨가 더 나으므로 (22.4%), 시간이 절약되므로(21.5%), 생활을 간소화 시켜주므로(15.6%), 잘 할 줄 모르기 때문(4.4%), 전문가가 하는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0.7%) 순이었다. 따라서, 식생활영역의 서비스 사회화에 있어서 주부들을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사부담을 해

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족해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가장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해 불만족해 하는 이유는 주부가 조금 수고를 함으로써 지출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18.3%)로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의생활영역의 서비스 사회화에 대해 만족한 이유는 전문가의 솜씨가 더 낫기 때문(17.8%)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이 가족들을 위해 옷을 수선하거나 손질하는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전문가에게 맡겨 대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처리되기 때문(27.8%)으로, 주부들이 의생활 영역의 서비스 사회화에 있어서 일처리가 잘못되어 불만족한 경험을 많음을 알 수 있다.

주생활영역의 서비스 사회화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주부들이 잘 할 줄 모르기 때문(31.6%)과 전문가의 솜씨가 더 나으므로(27.8%)

〈표 6〉 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주부의 연령	1.000													
2. 주부의 교육수준	-.251 [*]	1.000												
3. 주부의 취업여부	-.119	-.014	1.000											
4. 가족수	0.274	0.274	-0.103	1.000										
5. 자녀수	0.393	-0.026	-0.123	0.781	1.000									
6. 가족형태	-0.004	0.090	0.026	0.502	0.020	1.000								
7. 가정소득	0.174	0.205	0.027	0.180	0.119	0.136	1.000							
8. 주거형태	-0.116	-0.035	-0.001	-0.115	-0.094	-0.016	-0.048	1.000						
9. 내구재소유수준	0.160	0.222	-0.083	0.196	0.177	0.060	0.367	-0.142	1.000					
10. 성역할태도	-0.109	0.253	0.290	0.007	-0.014	0.006	0.350	-0.030	0.204	1.000				
11.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0.011	-0.186	-0.223	0.022	0.035	0.018	-0.369	0.031	-0.165	-0.592	1.000			
12. 가사노동수행능력	-0.110	0.086	0.251	-0.029	-0.031	0.029	0.274	-0.034	-0.060	0.423	-0.660	1.000		
13.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수준	-0.045	0.230	0.241	0.012	-0.015	0.056	0.583	-0.044	0.225	0.713	-0.431	0.557	1.000	
14. 가정노동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	-0.048	0.118	0.164	0.058	0.056	0.041	0.253	-0.079	0.111	0.508	-0.431	0.376	0.546	1.000
평균(X)	46.307	15.654	0.251	4.600	2.278	1.215	137.537	1.759	13.512	33.522	50.112	51.617	60.598	45.523
표준편차(SD)	11.549	2.553	0.434	1.284	1.033	0.411	74.988	0.643	2.358	9.185	8.104	8.620	11.847	4.745

〈표 7〉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

(N=410)

불만족의 이유	식생활영역	의생활영역	주생활영역	가족돌보기	구매관리영역
1.주부가 하는 것이 일처리가 더 꼼꼼하고, 주부가 손수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때문	86(21.0)	65(15.9)	21(5.3)	66(16.2)	30(7.3)
2.주부가 조금 수고함으로써 쓸데 없는 지출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149(36.3)	64(15.7)	45(11.2)	53(12.9)	46(11.3)
3.개인 특유의 기호가 무시되기 때문(가족 특유의 맛이나 전통성을 살릴 수 없기 때문)	75(18.3)	16(3.9)	10(2.4)	29(7.2)	29(7.1)
4.일을 맡기기 전에는 전문가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	20(4.9)	55(13.5)	84(20.5)	84(20.6)	8(2.0)
5.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35(8.5)	114(27.8)	109(26.8)	51(12.4)	58(14.1)
6.잘못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7(1.7)	53(12.9)	55(13.6)	14(3.4)	49(12.0)
7.가족의 협동과 단란을 파괴하므로	8(2.0)	7(1.7)	23(5.8)	71(17.3)	9(2.2)
8.불친절하거나 횡포를 부리므로	23(5.6)	17(4.1)	46(11.4)	32(7.8)	79(19.3)
9.주부가 직접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므로	7(1.7)	18(4.4)	9(2.4)	8(2.0)	101(24.6)

* 괄호 안은 (%).

었다. 따라서, 주부들이 주생활영역의 서비스 사회화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더 나은 솜씨를 빌려 가사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26.8%), 일을 맡기기 전에는 전문가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20.5%),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가사노동 서비스 전문가의 자격증제도를 만들어 주부들의 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돌보기 영역에 있어서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유는 주로 잘 할 줄 모르기 때문(19.3%)과 전문가가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으로(30.2%), 이 분야에 있어서 주부들의 가사노동 수행 기술이 고도로 전문적이어야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상당한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전문가에게 대행시키는 데 만족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표 8〉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의 이유

(N=410)

만족이유	식생활영역	의생활영역	주생활영역	가족돌보기	구매관리영역
1. 집에서 하던 일이 많아져 귀찮기 때문	145(35.4)	54(13.2)	13(3.2)	39(9.5)	55(13.4)
2. 전문가의 솜씨가 더 나으므로	92(22.4)	139(34.0)	114(27.8)	61(14.9)	11(2.7)
3. 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	88(21.5)	69(16.9)	38(9.3)	75(18.3)	186(45.4)
4.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주부가 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므로)	18(4.4)	73(17.8)	129(31.6)	79(19.3)	16(3.9)
5. 생활을 간소화시켜주기 때문	64(15.6)	28(6.8)	20(4.9)	23(5.6)	133(32.4)
6. 전문가가 하는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	3(0.7)	46(11.2)	95(23.3)	124(30.2)	9(2.2)

* 괄호 안은 (%)

러한 서비스의 사회화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을 맡기기전에 전문가의 능력을 알 수 없음으로(20.6%)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매 및 관리영역에 있어서는 시간이 절약되고(45.4%), 생활을 간소화시켜 주기 때문에(32.4%),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으며, 주부가 직접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거나(24.6%) 불친절하고 횡포를 부리므로(19.3%) 상당히 불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주부들은 집에서 하던 일이 많아져 귀찮아서, 그리고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의 사회화에 대하여 만족해 하고 있었고, 가사노동 서비스에 의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전문가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그들의 능력을 알 수 없고, 일처리가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불만족해 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수준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가사노동 사회화에 있어서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기여도를 알아보고, 가족의 욕구충족을 극대화하여 가정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사노동 사회화의 적정 수준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설정된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은 주부의 교육·취업여부, 가정소득, 주거형태, 내구재 소유수준 및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 수행능력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정소득, 내구재 소유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와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이고,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가사노동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가정소득,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 수행능력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제변수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

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성역할 태도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소득,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가사노동수행능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제 변수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의 총분산을 설명하여 주는 정도는 71.6%였다.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는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즉,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이 높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긍정적인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제변수들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수준의 총분산을 18.5% 설명해 주고 있다.

넷째, 주부들은 전반적으로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해 집에서 하면 일이 많아져 귀찮거나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해 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을 느껴거나 전문가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그들의 능력을 알 수 없고, 일처리가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불만족해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은 주부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보다는 사회심리학적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 개개인의 인적 능력과 심리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를 수행할 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느냐에 따라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둘째,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으로, 성역할태도 보다는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관념을 지닐 때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부들의 사회참여가

적고 가사노동을 주부가 전담하는 경향이 높아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가 활발히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은 주부들의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불만족하는데 비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수준이 높은 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보다 많은 주부들이 서비스의 사회화를 경험할 기회가 생기면, 서비스에 대한 평가수준이 향상되고 각 가정에 적절한 사회화수준을 모색하여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도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나아가 가족원의 욕구충족도 보다 극대화되어 가정생활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부들은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가정내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가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조사하는 데 있어 조사대상인 주부들의 의견을 물어 보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기타 가족구성원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 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족원 전체의 욕구충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사노동 사회화의 적정수준을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타 가족구성원들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을 포함하는 범위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중 가족돌보기 영역에 속하는 간병사의 이용이나 자녀돌보아 주는 사람의 이용과 그에 대한 만족, 불만족의 정도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그 외의 가사노동영역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사회화

가 일반화되지 못한 부분들의 가사노동을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한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부들이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해 불만족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경험이 다음번 서비스의 재구매에 피이드 백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와 주부들이 각 가정에 알맞은 가사노동 사회화의 적정수준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에 대한 만족수준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있어서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 부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유형의 재화에 의한 가사노동 사회화나 가사노동 기계화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가사노동 사회화의 적정수준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 재화에 의한 사회화와 가사노동 기계화 부분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들 분야들을 종합하여 가사노동 사회화를 연구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충족의 극대화와 가정생활의 질향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신주·서병숙·최보가, “생활시간 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제6권, 1968, pp. 133-141.
- 2) 강정옥,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4.
- 3) 김명희,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4.
- 4) 김영모, “한국인의 계층구조와 그 이동에 관한 연구”, 「중대논문집」, 제24집., 1980.
- 5) 김희숙,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I)”,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1981, pp. 55-64.
- 6) 김혜경, “가사노동 이론에 관한 연구: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5.
- 7) 문숙재,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4호, 1982, pp. 117-184
- 8) ———, 채옥희, 「가사노동」, 서울:신광출판사, 1986.
- 9) 박애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9.
- 10) 박태은, “도시주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11) 서창원, “주부의 가사노동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4.
- 12)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1987.
- 13) 이기춘 외 5인,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1989, pp. 115-132.
- 14) 이동원, “취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제27집, pp. 229-265.
- 15) 이정수·고경애,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23권 제2호, 1985, pp. 67-80.
- 16) 이재희, “도시 주부의 가사관련 [서비스]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I)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신대학 논문집」 제17호, 1989, pp. 405-422.
- 17) 정승혜,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7.
- 18) 정연주(1986), “도시 가정의 가사노동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6.
- 19) 정영금,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4)
- 20) ———,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9.
- 21) 조윤경, “가사노동사회화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8.
- 22) Bellante, D. & Foster, A.C.,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s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1, Sept. 1984, pp. 700-707.
- 23) Beutler, I.F. & Owen, A.J., “New Perspective on Home Production — A Conceptual View”, in Colien Heffern ed., *The Household as Producer — A Look beyond the Market*, Proceedings of a Workshop Sponsored by the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Section of the AHEA, 1980.
- 24) Egner, Erich, *Der Haushalt; Eine Darstellung seiner volkswirtschaftlichen Gestalt*, Berlin, 1952.
- 25) ———, “Zum Verstandnis des hauwirtschaftlichen Strukturwandels in Aspekte des hauswirtschaftlichen strukturWandels”, *Beitrage zur Okonomie von Haushalt und Verbranch*, 3. Berlin, 1967.
- 26) Gilman, C.P., *Woman and Economics*, New York: Harper, 1966.
- 27) Gronau, R.,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4), 1977, pp. 1099-1124.
- 28) Hafstrum, J.L. & Schram, V.R.,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 11, No. 3, 1983, pp. 245-263.
- 29) Hall, F.T. & Schroeder, M.P., “Effects of Family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Time Spent on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1970, pp. 23-29.
- 30) Hartmann, H.I., “Capitalism and Woman’s Work in the Home, 1900-1930”,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4.
- 31) Maloch, F., “Characteristics of most and least liked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55, 1963, pp. 413-416.
- 32) Osmond, M. W. & Martin, P.Y.,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1975, pp. 714-758.
- 33) Owen, A. J. & Betler, I.F., “Household Production and Market Employment: Dual avenues of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81, pp. 157-174.
- 34) Reid, M.,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34.
- 35) ———, “Comment: The Household as Producer”, in Colien Hefferan ed., *The Household as Producer — A Look beyond the Market*, Proceedings of a Workshop sponsored by the Family Economics — Home Management Section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80.
- 36) Steidl, R. E., “Affective Dimension of High and Low Cognitive Homemaking Task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1975, pp. 121-137.
- 37) Walker, K.E. & Woods, M.E.,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 38) 荒又重雄, “賃勞動論の展開,” 東京: 御茶の水書房, 1978.
- 39) 廣田壽子, “勞動者世帯における家事勞動”, 家庭經濟學論叢, 7券, 1971.
- 40) 伊藤秋子, 改訂家庭管理學, 東京: 光生館, 1978.
- 41) 大森和子外 5人, 家事勞動, 東京: 光生館, 1981.